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 해 인¹⁾

신 나 나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매개하는지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만 3~5세 자녀를 둔 부부 238쌍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각각에 대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API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은 부정적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부의 아동기 모애착과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이 매개역할을, 부부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애착 회피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양육행동,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 본 논문은 서해인의 박사학위논문(202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375).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nanashin@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자 환경으로, 자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자녀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권미나, 2020; Parkes, Green, & Mitchell, 2019). 특히 유아기는 부모의 역할이 보호자에서 훈육자 및 양육자로 변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인성 형성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문혁준 등, 2016; 윤경미, 한세영, 2017).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일상적인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양육과 관련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Anderson & Sabatelli, 2011), 이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인성 발달과 행동 특성을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증진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양육 경험(하민경, 2019), 부부 갈등(Gao, Du, Davies, & Cummings, 2019)과 같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여 이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Belsky(1984)는 생태학적 이론을 근거로 한 양육행동결정 과정모델에서 부모가 자라온 배경, 부모의 성격특성, 부부 관계 및 아동의 특성 등이 상호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중 부모가 성장해 온 발달사와 성격특성에 주목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양육 경험이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2018; Crowell & Feldman, 1988),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사 요인의 중요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특히 Belsky(1984)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후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원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유사한 양육행동을 보이거나 원부모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모의 발달사가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격특성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lsky, 1984).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들이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돕는 양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Belsky, 1990), 안정적인 성인애착이 성격특성 중 자아실현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며, 성인애착이 성격의 발달과 구성요소를 밝히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Lopez & Brennan, 2000),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성인애착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아동기 부모애착과 이에 기반을 둔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Belsky(1984)의 모델뿐 아니라 Bowlby(1969/1982, 1973, 1980)의 애착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애착은 생애 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내적작동모델은 초기 애착 대상에 대한 기억, 태도 및 신념 등을 내포하며(Simpson & Rholes, 2010) 생애 초기에는 변화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형성되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기영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Collins & Read, 1994). 또한 내적작동모델은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여 성인기 애착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고(Hazan & Shaver, 1987) 나아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thert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초기 애착 경험과 관련된 아동기 부모애착이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인애착과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기 부모애착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더 보이며, 자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더 보인 반면(Crowell & Feldman, 1991; van IJzendoorn, 1995),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수연, 최미경, 2015; Strand & Wahler, 1996). 아동기 부모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아버지 또한 양육자로서 자녀의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므로, 양육행동 연구에 아버지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할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옥정, 방희정, 2012; Lamb, 2010; Parkes et al., 2019). 구체적으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원부모에 대한 표상이 안정적일수록 자녀를 격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더 보인 반면, 아동기 부모에 대한 표상이 불안정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덜 보였다(옥정, 방희정, 2012). 부모 모두를 포함하여 양육행동을 살펴볼 경우, 부부의 관계적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경험을 반영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도 유사하게 이루어진다(Bowen, 1978). 즉, 부모 각각 원부모와 경험한 관계, 정서 및 행동 양식이 현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부모 두 사람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현재 양육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기 부모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거나(김진경 등, 2018) 아동기 모애착만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배효정, 김도연, 2015; 채진영, 2011; 채진영, 이강이, 2009) 또는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부모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통해서만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곽소현, 김순옥, 2006)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 모애착은 직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기 부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소 비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들이 성인애착의 토대를 형성하게 하여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먼저,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부모와의 관계가 애정적이었다고 회상한 성인일수록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고(Hazan & Shaver, 1987), 자신의 어머니를 차갑고 거부적이었다고 회상한 성인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회피적 애착을 더 보였다(Feeney & Noller,

1990). 이 외에도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들(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3)도 수행되고 있다.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 차원은 각각 정서 및 행동적 측면에서 과잉활성화와 비활성화와 같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며(Mikulincer & Shaver, 2003),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개인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llen et al., 2001).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섬세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고 보고할수록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난 반면(백솔, 한기백, 2020; 한기백, 2013), 통제와 간섭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할수록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백솔, 한기백, 2020).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기 부모애착이 안정적인수록 애착 불안 수준은 낮았지만 회피 수준은 높게 나타나거나(이시연, 박성연, 지연경, 2014), 아동기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애착 회피에만 영향을 미친 연구(한기백, 2014b)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부모애착을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구분하여 애착 불안과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애착 불안과 회피에 영향을 미치거나(한기백, 2013),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조화진, 서영석, 2010)가 모두 보고되어 비일관적이었다. 이 외에도 성인애착 중 애착 불안에만 초점을 두어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오가영, 한지현, 2019)에서는 아동기 모애착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렇듯 관련 선행연구들은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아동기 부모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회피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애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불안정 애착의 어머니일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다(김지영, 민하영, 2010; 김춘경, 조민규, 2015). 아버지를 포함하여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김순영, 김환, 2013; 김혜원, 유성경, 2017)에서 일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순영과 김환(201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적대적 태도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유아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은 더 보이고(안명희, 2010), 애정적이고 독립성 지향의 양육행동은 적게 보인 반면(하유미, 박성연, 2012), 애착 회피는 심리적 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2010). 본 연구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부모역할 수행에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안명

희, 2010; 하유미, 박성연, 2012)을 고려하여,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구분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Bowlby(1969/1982, 1973, 1980)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이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의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이러한 가정을 살펴본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원부모와의 경험과 관련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원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인애착이 안정적이며, 이는 부부 공동양육의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나, 차기주, 정미라, 2016). 또한 임신기의 배우자를 둔 예비 아버지가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감정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현경, 채진영, 2016).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볼 때, 성인애착은 아동기 부모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연구대상으로 부부를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부부 간 관계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부부 관계는

친밀함을 바탕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특성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미치는 상대방효과 또한 함께 작용할 수 있다(Kenny, 1996).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주로 개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관계(dya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enny(1996)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가정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제안하였다. APIM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한 맥락의 변인들을 통해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방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APIM을 적용하여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유성경, 2017)에서 자기효과의 경우, 부부 모두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으나 부부의 애착 회피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효과의 경우, 아버지의 애착 불안만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Millings, Walsh, Hepper, & O'Brien, 2013)에서는 부부의 성인애착이 자신의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친 반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아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APIM을 적용하여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워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로 확장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커플 관계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Godbout, Dutton, Lussier, & Sabourin, 2009)에서는 남녀 모두 아동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의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가 커플 관계에서 서로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거나 밀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Godbout, Briere, Sabourin, & Lussier, 2014)에서는 커플 관계의 성인 남녀가 아동기 자신의 성학대 피해 경험을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각할수록 남성의 애착 회피 수준과 여성의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의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연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기 경험이 자신의 성인애착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관계적 측면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기 부모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부의 양육행동의 역동적 측면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각 연구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결혼 기간과 관련하여 결혼 10년 미만의 경우, 부부 각각의 애착 유형에 따라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 반면,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불안정 애착 유형인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애착 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Feeney, 1994). 또한 결혼 기간에 따라 양육행동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나동석, 박종인, 2008),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는 데 결혼 기간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혜원, 유성경, 2017). 다음으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낮은 반응성을 보인다(Feeney, 1994).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민주적 양육태도를 더 보여(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민주적 양육행동을 더 보여(박명희 외, 2015; 장영은, 2015) 부모의 교육 수준이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결혼 기간, 가구 소득, 교육 수준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현재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성인애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비록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양육행동의 변인을 세분화하

여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Hazan & Shaver, 1987) 나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Belsky, 1984)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성인애착으로 연결되면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각각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여, 아동기 부모애착을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회피로 구분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부 쌍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활용하여 아동기 부모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과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적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아동기 부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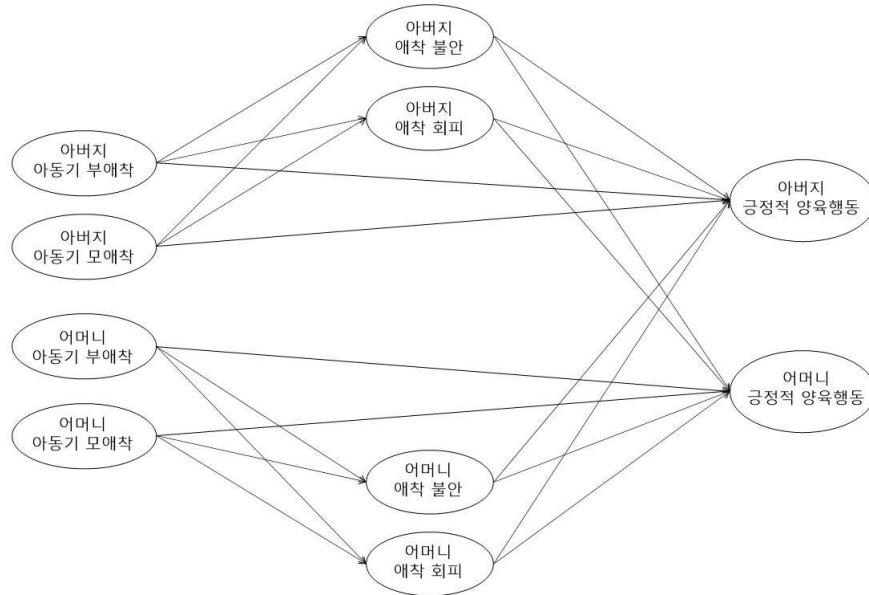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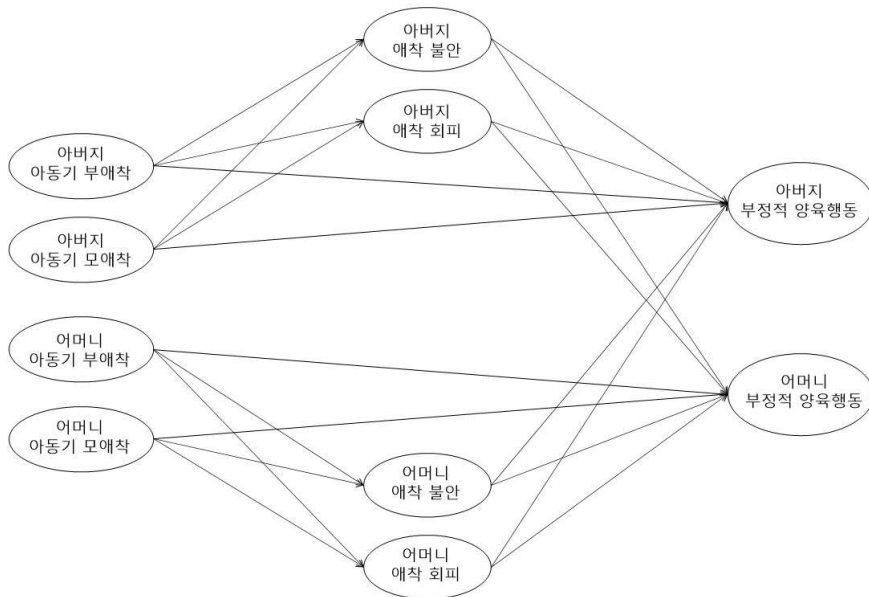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II

1.2.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에서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회피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아동기 부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어떠한가?

2.2.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 ~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238쌍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모애착은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경험을 측정하므로 부부 모두 아동기에 양(兩)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성장한 경우에만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5 ~ 39세가 아버지 113명(48.1%)과 어머니 110명(47.2%)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아버지 170명(71.4%)과 어머니 139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기간은 평균 86.03개월($SD = 28.58$), 약 7.2년으로 5년 이상 ~ 8년 미만이 160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91가구(38.2%)로 가장 많았다. 만 3세의 유아 자녀를 둔 부부가 95쌍(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4세 79쌍(33.2%), 만 5세 64쌍(26.9%) 순이었다.

2. 측정도구

아동기 부모애착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2)가 개발한 성인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Jeon(1994)이 번안하고, 곽소현과 김순옥(200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동기 시절(5 ~ 12세 정도)을 회상하며 응답하도록 제시되었고,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각각 16문항씩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고,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원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86, .85로,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89, .87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부부의 성인애착은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척도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을 국내에서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 시 자신의 친밀한 관계 전반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애착 불안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 거절에 대한 걱정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착 회피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애착 불안과 회피는 각각 .94와 .91, 어머니의 애착 불안과 회피는 각각 .93과 .91이었다.

양육행동

부부의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나지혜(2012)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온정(9문항), 논리적 설명(10문항), 개입(9문항), 강압(7문항), 방임(10문항)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온정은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논리적 설명은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입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등이, 강압은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벌로써 아이를 지도한다.’ 등이, 방임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온정, 논리적 설명은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개입, 강압, 방임은 부

정적 양육행동으로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양육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는 .90, 어머니는 .88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버지는 .92, 어머니는 .91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본 연구는 결혼 기간과 가구 소득 및 부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결혼 기간은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부부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분석 시 개월 수로 단위를 변환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가구 소득은 부부의 월 가구 소득으로 측정되어 ‘200만원 미만(1)’부터 ‘500만원 이상(5)’까지 100만원 단위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1)’부터 ‘대학원 이상(6)’까지 해당하는 범위에 응답하는 범주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163-22)을 받은 후,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8개월에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집과 교회 등에 모집공고문을 배부하고, 자녀 양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문을 게시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부부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부에게 응답 시 서로 의논하지 않도록 안내한 후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의 온라인 링크 주소를 보내

설문이 진행되었다. 자료 코딩 시 양자(dyadic) 자료임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첫 장에 부부가 공통으로 기입할 일련번호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즉, 아버지는 아버지용 질문지에, 어머니는 어머니용 질문지에 작성하되 질문지 첫 장에 기입할 일련번호는 부부가 상의하여 두 사람이 동일한 문자 및 숫자를 작성하도록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을 모두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자료에서 제외하였고, 총 238쌍(476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및 각 변인 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쌍 자료 분석을 위해 APIM을 적용하여 아동기 부모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와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자기효과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자기-상대방효과를 설정하여 경로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부모

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할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개별간접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배병렬, 2017).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의 주요 변인들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왜도는 $-0.66 \sim 2.76$, 첨도는 $-0.76 \sim 8.38$ 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이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변인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분석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연구모형을

표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238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																	
2	.54***	-																
3	-.15*	-.37***	-															
4	-.41***	-.48***	.39***	-														
5	.31***	.55***	-.41***	-.51***	-													
6	.14*	.33***	-.36***	-.31***	.60***	-												
7	-.26***	-.28***	.31***	.24*	-.44***	-.36***	-											
8	-.12	-.28***	.21**	.15*	-.42***	-.38***	.68***	-										
9	-.16*	-.40***	.34***	.17**	-.36***	-.40***	.30***	.38***	-									
10	.00	.10	.07	.03	-.05	-.04	.07	-.02	-.01	-								
11	.05	.11	.06	.04	-.06	-.02	.03	-.06	-.14*	.48***	-							
12	.14*	-.15*	.22**	-.04	-.12	-.12	.01	.11	.22**	-.33***	-.37***	-						
13	.10	.03	.02	-.01	.04	-.03	-.06	-.01	-.03	-.36***	-.40***	.37***	-					
14	-.12	.00	-.01	.05	.09	.12	-.03	-.15*	-.09	.31***	.29***	-.43***	-.49***	-				
15	-.15*	.11	-.14*	-.07	.14*	.24***	-.01	-.10	-.14*	.21**	.24***	-.37***	-.41***	.58***	-			
16	.05	.05	-.05	-.11	.00	-.11	.27***	.29***	.08	-.16*	-.24***	.33***	.19**	-.50***	-.32***	-		
17	.03	-.04	.00	-.07	-.07	-.11	.27***	.46***	.08	-.16*	-.22**	.32***	.19**	-.50***	-.38***	.71***	-	
18	.17**	-.07	.14*	-.06	-.04	-.11	.05	.14*	.43***	-.15*	-.28**	.38***	.22**	-.31***	-.26***	.17**	.26***	-

주. 1. 아버지 응답: 1. 아동기 부애착, 2. 아동기 모애착, 3. 애착 불안, 4. 애착 회피, 5. 온정, 6. 논리적 설명, 7. 개입, 8. 강압, 9. 방임.

2. 어머니 응답: 10. 아동기 부애착, 11. 아동기 모애착, 12. 애착 불안, 13. 애착 회피, 14. 온정, 15. 논리적 설명, 16. 개입, 17. 강압, 18. 방임.

* $p < .05$. ** $p < .01$. *** $p < .001$.

설정하였다. 즉, 하나의 연구모형에 부부 각각의 아동기 부애착, 아동기 모애착, 애착 불안, 애착 회피, 긍정적 양육행동의 10개의 잠재변인을, 다른 연구모형에는 부부 각각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애착 불안과 회피, 부정적 양육행동의 10개의 잠재변인을 포함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그리고 애착 불안과 회피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가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이 각 묶음으로 배정되는 문항묶음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 3묶음씩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즉, 아동기 부애착(부애착1, 2, 3)과 아동기 모애착(모애착1, 2, 3), 애착 불안(불안1, 2, 3), 애착 회피(회피1, 2, 3)에서 각각 세 가지 측정변인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온정, 논리적 설명의 두 가지 측정변인이,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개입 및 강압, 방임의 두 가지 측정변인을 포함하였다. 부정적 양육행동의 측정변인 중 개입과 강압은 원래 구별된 하위요인이었으나 두 변인 간 상관성이 높고(부: $r = .68, p < .001$, 모: $r = .71, p < .001$) 양육행동을 온정과 통제의 차원으로 분류할 때(Becker, 1964), 통제의 정도에 따라 지시 및 과잉간섭과 같은 개입이나 신체적 체벌과 같은 강압의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통제의 차원에 포함된다고 보는 연구(Karreman, van Tuijl, van Aken, & Deković, 2008)에 근거하여 개입과 강압을 ‘개입 및 강압’으로 합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와 TLI,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로 평가하였다. 적합도 기준을 살펴보면,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 는 3보다 작을 때 적합한 모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χ^2 값은 표본의 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유의한 결과를 쉽게 도출하는 한계가 있으므로(Kline, 2015)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다른 적합도 지수 중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에는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행동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599.834(df = 305, p < .001)$, $\chi^2/df = 1.967$, TLI = .926, CFI = .940, RMSEA = .064(90% CI [.056, .071])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행동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627.346(df = 305, p < .001)$, $\chi^2/df = 2.057$, TLI = .916, CFI = .932, RMSEA = .067(90% CI [.059, .074])로 나타나 χ^2 을 제외하고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최종모형들의 모든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β)은 긍정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64 ~ .93, 부정적 양육행동 모형에서 .43 ~ .93으로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모형 분석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통제변인 중 하나인 가구 소득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변인 간 경로를

살펴볼 때, 결혼 기간과 부모의 교육 수준만을 통제하였다.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과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 그리고 성인애착이 자신과 배우자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상대방효과)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hi^2 = 743.642(df = 393, p < .001)$, $\chi^2/df = 1.892$, TLI = .917, CFI = .930, RMSEA = .061(90% CI [.055, .068])로 나타나 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였다.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결과는 표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기효과의 경우 첫째, 아버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서 아동기 모애착만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0, p < .001$). 즉, 아버지가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현재 자녀에게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고,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현재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과 회피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은 애착 회피에만 유의한 영향($\beta = -.22, p < .01$)을 미쳤고, 애착 회피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30, p < .001$). 즉, 아버지가 아동기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애착 회피 수준은 낮았고, 애착 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애착 불안($\beta = -.38, p < .001$)과 애착 회피($\beta = -.37, p < .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불안: $\beta = -.18, p < .01$, 회피: $\beta = -.30, p < .001$). 즉, 아버지가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은 낮았으며,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은 애착 회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에 대한 애착은 현재 긍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 및 회피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자신의 애착 불안(부애착: $\beta = -.23, p < .01$, 모애착: $\beta = -.27, p < .001$)과 애착 회피(부애착: $\beta = -.20, p < .01$, 모애착: $\beta = -.33,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애착 불안과 회피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의 경로도 모두 유의하였다(불안: $\beta = -.27, p < .001$, 회피: $\beta = -.42, p < .001$). 즉,

표 2.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긍정적 양육행동 모형 경로계수 ($N = 238$ 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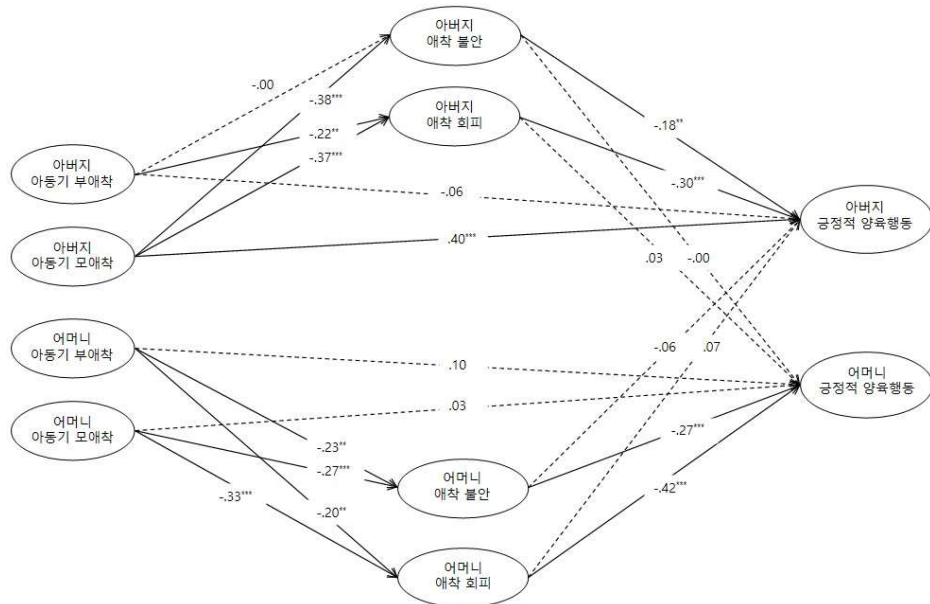
잠재변인 간 경로	B	β	SE	$C.R.$
<u>자기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01	-.00	.24	-.03
→ 부 애착 회피	-.61	-.22	.22	-2.73**
→ 부 긍정적 양육행동	-.10	-.06	.12	-.84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76	-.38	.17	-4.45***
→ 부 애착 회피	-.72	-.37	.16	-4.48***
→ 부 긍정적 양육행동	.45	.40	.09	4.82***
부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10	-.18	.04	-2.73**
부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17	-.30	.04	-3.97***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49	-.23	.16	-3.03**
→ 모 애착 회피	-.42	-.20	.16	-2.60**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9	.10	.08	1.24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63	-.27	.18	-3.49***
→ 모 애착 회피	-.77	-.33	.18	-4.20***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4	.03	.09	.41
모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12	-.27	.04	-3.44***
모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19	-.42	.04	-5.42***
<u>상대방효과</u>				
부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0	-.00	.03	-.05
부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1	.03	.03	.35
모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3	-.06	.04	-.87
모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4	.07	.04	1.07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애착 불안과 회피 수준이 낮았으며, 애착 불안과 회피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모두 자신의 애착 불안 및 회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부부 자신의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의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통제변인인 결혼 기간과 교육 수준은 주요 변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모형의 간접성을 위하여 측정변인, 오차항, 통제변인은 그림에서 생략하였음.

** $p < .01$. *** $p < .001$.

그림 3.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모애착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과 회피의 간접효과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은 아버지의 애착 회피($B = .10, p < .01$)를 통해,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아버지의 애착 불안($B = .08, p < .05$)과 애착 회피($B = .12, p < .01$)를 통해 아버지 자신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어머니의 애착 불안(부애착: $B = .06, p < .05$, 모애착: $B = .08, p < .01$)과 애착 회피(부애착: $B = .08, p < .05$, 모애착: $B = .15, p < .01$)를 통해 어머니 자

신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외에도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부모애착과 애착 불안 및 회피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49.0%,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44.0%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기 부모애착은 아버지의 애착 불안과 회피를 각각 14.7%, 30.1%, 어머니의 애착 불안과 회피를 각각 19.8%, 22.4%를 설명하였다.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

표 3. 긍정적 양육행동 모형에서의 간접효과 검증

(N = 238쌍)

잠재변인 간의 경로	간접효과(B)	95% CI
<u>자기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0	-.056, .076
→ 부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10**	.021, .314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8*	.019, .143
→ 부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12**	.052, .224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6*	.016, .136
→ 모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8*	.016, .174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8**	.019, .190
→ 모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15**	.065, .255
<u>상대방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0	-.019, .026
→ 부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1	-.071, .039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0	-.053, .057
→ 부 애착 회피 → 모 긍정적 양육행동	-.01	-.074, .041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2	-.036, .074
→ 모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2	-.081, .014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2	-.043, .099
→ 모 애착 회피 → 부 긍정적 양육행동	-.03	-.102, .026

* $p < .05$. ** $p < .01$.

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과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 성인애착이 자신과 배우자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상대방효과)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chi^2 = 764.410(df = 393, p < .001)$, $\chi^2/df = 1.945$, TLI = .909, CFI = .923, RMSEA = .063(90% CI [.056, .070])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 및 결과는 표 4와 그

림 4에 제시되었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결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자기효과의 경우 첫째, 아버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서 아동기 모애착만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47, p < .001$). 즉, 아버지가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과 회피를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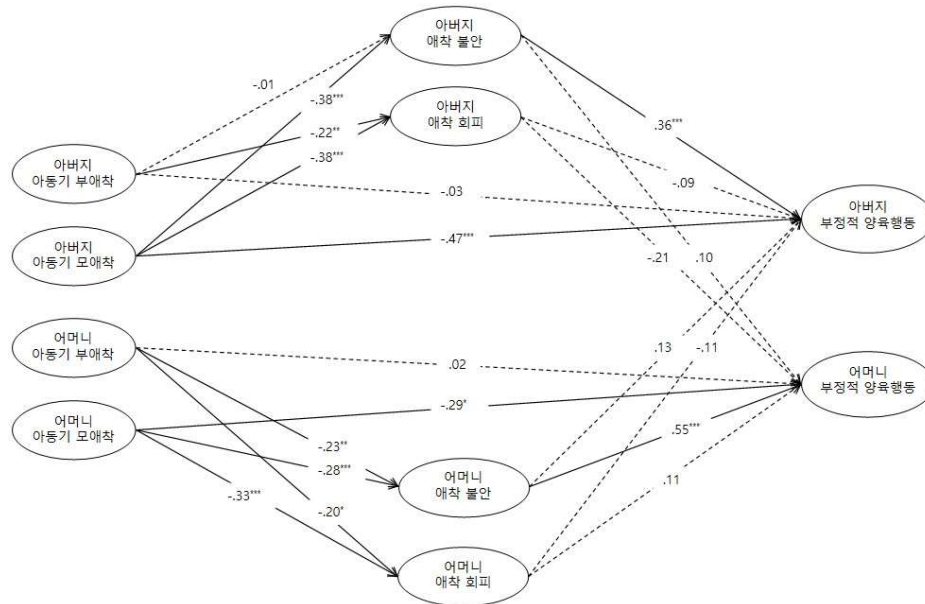
표 4.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부정적 양육행동 모형 경로계수 ($N = 238$ 쌍)

잠재변인 간 경로	B	β	SE	$C.R.$
<u>자기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02	-.01	.24	-.09
→ 부 애착 회피	-.61	-.22	.23	-2.72**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2	-.03	.08	-.29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74	-.38	.17	-4.38***
→ 부 애착 회피	-.72	-.38	.16	-4.48***
→ 부 부정적 양육행동	-.28	-.47	.07	-3.95***
부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11	.36	.03	3.60***
부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3	-.09	.03	-.91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48	-.23	.16	-3.00**
→ 모 애착 회피	-.42	-.20	.16	-2.59*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1	.02	.06	.14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64	-.28	.18	-3.53***
→ 모 애착 회피	-.78	-.33	.19	-4.20***
→ 모 부정적 양육행동	-.17	-.29	.07	-2.30*
모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14	.55	.04	4.21***
모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3	.11	.03	.92
<u>상대방효과</u>				
부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3	.10	.03	.89
부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5	-.21	.03	-1.78
모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4	.13	.03	1.41
모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3	-.11	.03	-1.20

* $p < .05$. ** $p < .01$. *** $p < .001$.

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아동기 부모애착 중 아동기 모애착만이 애착 불안에 유의한 영향($\beta = -.38, p < .001$)을 미쳤고, 애착 불안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의 경로도 유의하였다($\beta = .36, p < .001$). 즉, 아버지가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애착 불안 수준은 낮았고, 애착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모두 애착 회피(부애착: $\beta = -.22, p < .01$, 모애착: $\beta = -.38,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애착 회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모형의 간결성을 위하여 측정변인, 오차항, 통제변인은 그림에서 생략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

피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애착 회피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애착 불안을 통해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에서 아동기 모애착만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29, p < .05$). 즉,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회상할수록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 및 회피를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애착 불안(부애착: $\beta = -.23, p < .01$, 모애착: $\beta = -.28, p < .001$)과 애착 회피(부애착: $\beta = -.20, p < .05$, 모애착: $\beta = -.33,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애착 불안만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55, p < .001$). 즉, 어머니가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애착 불안과 회피 수준이 낮았으며, 애착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인 반면, 어머니의 애착 회피 수준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었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은 애착 불안을 통해서만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아동기 모애

작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애착 불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의 경우, 부부 자신의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가 배우자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인 결혼 기간은 부부의 애착 불안 및 회피, 부정적 양육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버지의 교육 수준만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9, p < .05$).

아동기 부모애착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애착 불안과 회피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아버지의 애착 불안($B = -.08, p < .05$)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모두 어머니의 애착 불안(부애착: $B = -.07, p < .01$, 모애착: $B = -.09, p < .01$)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표 5. 부정적 양육행동 모형에서의 간접효과 검증

($N = 238$ 쌍)

잠재변인 간의 경로	간접효과(B)	95% CI
<u>자기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0	-.065, .060
→ 부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2	-.014, .083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8*	-.159, -.030
→ 부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2	-.015, .073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7**	-.168, -.017
→ 모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1	-.062, .003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9**	-.177, -.026
→ 모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2	-.101, .011
<u>상대방효과</u>		
부 아동기 부애착 → 부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0	-.022, .018
→ 부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3	-.001, .102
부 아동기 모애착 → 부 애착 불안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2	-.051, .036
→ 부 애착 회피 → 모 부정적 양육행동	.04	-.004, .132
모 아동기 부애착 → 모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2	-.061, .010
→ 모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1	.004, .065
모 아동기 모애착 → 모 애착 불안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3	-.107, .010
→ 모 애착 회피 → 부 부정적 양육행동	.03	-.009, .085

* $p < .05$. ** $p < .01$.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외에도 다중상관치(SMC)를 살펴본 결과,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애착 불안 및 회피는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51.3%,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67.0% 설명하였다. 또한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은 아버지의 애착 불안과 회피를 각각 14.5%, 30.1%, 어머니의 애착 불안과 회피를 각각 19.9%, 22.3%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238쌍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성인애착이 아동기 부모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아동기 부모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차원으로,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부부 쌍 자료의 특성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성인애착의 매개효과에서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부모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현재 자신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행

동에 대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에서 차이가 있었다. 첫째,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은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모두,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은 부정적 양육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 모두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회상할수록 현재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였고, 아버지의 경우 긍정적 양육행동도 더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적작동모델의 개념과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애착이론과 관련하여, 어린 시절 원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전환되고,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원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을 자녀와의 관계에 투영하여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을 적용해보면, 부모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관찰하면서 이를 학습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학습된 행동은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기 모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원부모에 대한 표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현재 자녀와의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van IJzendoorn, 1995)와 일맥상통한다.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안정적인 모애착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독립지향적 양육행동(김진경 등, 2018)과 반응적 양육행동(채진영, 2011), 그리고 자녀를 지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참여행동(배효정, 김도연, 2015)을 더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아동기에 어머니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을 높게 지각한 아버지일수록 학령기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전현진, 박성연, 1999)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이 아버지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아동기 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비일관적이고, 통제적이며,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Strand & Wahler, 1996)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곽소현, 김순옥, 2006)와 일치한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회상한 애착이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전현진, 박성연, 1999; 전효정, 2003; Crowell & Feldman, 1988),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에게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민감하고 다정하며,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경향(오혜진, 도현심, 2019; 원수연, 최미경, 2015)이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본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인 온

정($r = .29, p < .001$), 논리적 설명($r = .24, p < .001$)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실제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애착 불안 및 회피를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어머니의 아동기 모애착의 영향을 상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애착 회피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보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애착 경험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부 모두 아동기 부애착은 자신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경우,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애정적인 가족 분위기가 지지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유리, 박성연, 2009)와 유사하지만, 아동기 부애착이 애정적이고 독립지향적 양육행동(김진경 등, 2018)과 양육책임감(배효정, 김도연, 2015)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곽소현, 김순옥, 2006; 채진영, 이강이, 2009)과 일치한다.

이처럼 아동기 부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애착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Bowlby(1969/1982)의 애착이론에서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이후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표상이 위계적으로 형성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일차적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 애착 대상이기 때문에(Howes & Spieker, 2008)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볼 때, 아동기 부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애착이 위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견해(Lewis, 2005)와 부애착과 모애착이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김선미, 김영희, 2019; 송하나, 2006; Liu, 2008)도 있어,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기 부애착의 영향이 덜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의 어떠한 측면에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력이 유사하고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잠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동기 원부모 애착표상과 관련된 연구들(채진영, 2011, 2019)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아동기 당시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 연령의 절반 이상이 3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연구참여자의 아동기는 약 30년 전인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 역할

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80년대부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그 이후로 꾸준히 연구들이 증가하는데(조선휘, 1997), 일상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자녀에게 자상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강조되어 이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보였다(정영숙, 이재택, 박영애, 권수애, 김영남, 1997).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주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아버지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시간이 적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동기 부애착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아버지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표상이 현재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동시대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이 자신의 애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아동기

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애착 불안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부부 모두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애착 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높다고 지각한 어머니일수록 성인애착이 안정적으로 나타난 연구(이미나 등, 2016)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원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보인 결과는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이후 성인기의 애착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한 애착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아동기 모애착이 애착 불안 및 회피에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아동기 부애착은 애착 회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중에서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만이 낭만애착에 영향을 미친 연구(강진경, 최혜경, 2001)와 유사하고, 아동기 부애착이 안정적인 남성일수록 현재 이성에 대한 낭만애착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된 연구(강정운, 2006)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미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와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혼자의 성인애착을 연인관계에서의 애착으로 한정하여 불안 및 회피로 구분하거나(강정운, 2006) 성인애착을 친밀, 의존, 불안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여(강진경, 최혜경, 2001)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인애착 측정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특히 강진경과 최혜경(2001)의 연구는 대상자 수가 36명으로 사례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더라도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 중에서 아버지의 애착 불안에 아동기 모애착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애착의 위계적 측면으로 논의한 점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애착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이 고려되었는데,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아동기 부애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애착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종 모형에서는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이 자신의 애착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관분석에서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r = -.15, p < .05$)이 나타나 아버지의 아동기 부애착과 애착 불안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 애착 불안 및 회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착 불안과 회피에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요인이 무엇인지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기 부모애착이 애착 불안과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

구 검증이 필요하며,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 애착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여 두 변인 간 경로의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성인애착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효과의 경우, 부부 모두 애착 회피가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경로에서는 유의한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부 모두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였으나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보였고, 부부 모두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였으나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언어적, 애정적 통제(안명희, 2010)와 부정적 양육행동(김혜원, 유성경, 2017)을 많이 보였으나, 애착 회피는 통제적 양육행동(안명희, 2010; 하유미, 박성연, 2012)과 부정적 양육행동(김혜원, 유성경, 2017)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모의 애착 불안과 회피 중 애착 불안만이 권위주의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강수진, 최영희, 2019; Millings et al., 2013)과도 유사하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애착 불안 및 회피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인 애착을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안한 선행연구들(김혜원, 유성경, 2017;

Brennan et al., 199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부의 애착 불안은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친 반면, 애착 회피는 긍정적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에는 애착 불안이, 긍정적 양육행동에는 애착 회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 및 회피가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강수진, 최영희, 2019; 김혜원, 유성경, 2017)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애착 불안과 회피의 특성에 따른 자기보고 패턴의 차이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불안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경험하거나 부정적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를 증폭시키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주로 사용하여(Mikulincer & Shaver, 2003), 이로 인해 양육행동의 부정적 측면에 더 강한 반응을 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억압 및 비활성화 전략을 주로 사용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압하거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주로 중립적 정서 반응을 보이는 등의 자기보고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Mikulincer & Shaver, 2003). 이에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경험은 억압을 통해 낮은 수준의 반응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행동과 실제 관찰되는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측정할 때,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의 경우, 부부의 애착 불안과 회피는 상대방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애착 불안 및 회피가 자신의 양육행동에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Millings et al.,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부부의 애착 불안 및 회피가 배우자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김혜원, 유성경, 201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최효식, 연은모, 2014)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아버지의 부정적 정서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김민정, 김종훈, 이미나, 2018)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APIM을 적용하여 부부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드물고,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부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볼 수 있다. 먼저, 양육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는 주로 부모 개인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된 양육행동 또한 배우자의 성인애착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정서조절 및 결혼만족도와 같은 개인적,

관계적 요인들이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김혜원, 유성경, 2017) 자신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PIM을 활용한 연구들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을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자기효과의 경우, 애착 불안과 회피에 따라 아동기 부모애착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애착 불안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부부 공통으로 아동기 모애착은 자신의 애착 불안을 통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 모두 아동기 자신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애착 불안 수준이 낮아져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모애착이 안정적인 어머니일수록 애착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오가영, 한지현, 2019)와 임신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인일

수록 애착 불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태아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부부의 아동기 모애착은 자신의 애착 불안을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쳤는데, 이는 아동기 모애착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애착 불안 또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에게서만 애착 불안의 매개역할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이 애착 불안을 통해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애착 경험을 안정적으로 회상할수록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불안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애착 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애착이 안정적인 어머니일수록 애착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오가영, 한지현, 2019)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부애착 그 자체는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단일변인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의 애착 불안이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애착 회피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부부 공통으로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신의 애착 회피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모두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 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긍정적으로 회상한 예비 아버지가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며, 이는 태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우현경, 채진영, 2016)와 유사하다. 반면, 부부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이 애착 회피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된 회피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억압과 비활성화 전략으로 인해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의 부정적 측면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의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애착 회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였고, 이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과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의 회피적 성향을 조절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신의 성인애착을 통해 배우자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여 자기-상대방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결과는 커플 관계의 남성과 여성이 아동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애착 불안과 회피 중에서 남녀 모두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파트너가 폭력적인 행동을 더 보인 연구(Godbout et al., 2009)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아동기 자신의 성학대 피해 경험에 대해 부모에게서 지지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회상할수록 여성은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남성은 애착 회피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남녀의 애착 불안과 회피 중에서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Godbout et al., 2014)와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변인과 동일한 변인이 아니므로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나 학대 피해 경험에 대한 원부모의 반응 변인은 아동기 부모애착과 관련은 있으나 애착 경험보다는 외상적 측면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이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특성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종속변인은 파트너에게 행하는 폭력적 행동이나 관계 만족도인데, 이는 커플 관계가 반영된 변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부모-자녀관계가 반영된 양육행동으로 보고 있어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쌍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에 초점을 두고, 성인애착이 부부 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통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변인 간 상대방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에 대한 아

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의 영향에서 전반적으로 아동기 모애착이 아동기 부애착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 불안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도록 하는 반면, 애착 회피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도록 하는 영향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 및 회피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을 제안한 연구들(하유미, 박성연, 2012; Brennan et al., 1998)과 양육행동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들(권정숙, 조용주, 2019; 김혜원, 유성경, 2017; Johnston et al.,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에서 상대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부모의 개인적 요인인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상대방의 특성보다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타인보다 자신이 변화하고자 노력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신희천, 서정선, 2007). 다시 말해,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은 배우자의 애착 경험보다 자신의 애착 경험에 의해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볼 때,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계적 요인이 상대방효과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고,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상대방효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양(兩)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만 3 ~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부부의 경우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확장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기 부모애착은 과거를 회상하며 질문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회고식 설문 방식은 현재의 정서 상태와 같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Lindsay & Read, 1994). 따라서 아동기 부모애착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개인의 정서 상태를 통제변인으로 적용하거나 성인애착면접 실시 또는 원부모 세대에게도 자녀와의 경험을 함께 조사하는 등 다차원적이고 객관적 연구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측정할 때 친밀한 대인관계를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여 배우자, 친구 등의 다양한 애착 대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성인애착 패턴이 관계적 맥락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대상, 목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애착유형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장휘숙, 2011). 또한 애착 대상

에 따라 성인애착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며, 애착 대상별로 애착 불안과 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었는데(Fraley, Heffernan, Vicary, & Brumbaugh, 2011),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주은, 이재림, 2015; 장은경, 이재림,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가 성인기의 중요한 애착 관계라는 점(Hazan & Shaver, 1987)을 고려하여 부부의 성인애착을 측정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성인애착을 평가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설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모델의 복잡성에 비해 표본 크기가 작아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 수를 확보하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인과관계가 적합한지 검증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애착, 성인애착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할 때,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드물고, 아동기 경험을 반영하더라도 주로 아동기 외상 경험에 국한하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안하얀, 서영석, 2018; 한기백, 2014a). 본 연구는 성인기 애착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이후 성인애착에 관한 연구 수행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는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왔던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반영하고, API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행동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기 부모애착을 아동기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회피로 세분화하여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의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측면은 감소시키기 위해 애착 불안과 회피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의 기초가 되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의 중요성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부모애착이 과거 회상을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의 인지적 구조를 통해 과거 경험들이 여과되어 기억되므로 실제 경험 자체보다는 그 경험에 대한 현재의 평가와 해석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문희, 이수림, 2013). 이러한 관점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 중 특히, 아동기에 원부모와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적, 교육적 함의를 가진다. 즉, 어린 시절 원부모와의 관계나 현재의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정

적으로 지각되는 부모의 주관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상담 장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 구성에 있어 부모의 개인적 요인인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 임신부의 원가족 어머니애착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관계 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1), 1-23.
<http://doi.org/10.18205/kpa.2018.23.1.001>
- 강수진, 최영희 (2019).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4), 465-485.
<http://doi.org/10.17641/KAPT.22.4.6>
- 강정운 (2006). 아동기 부모에 대한 내적표상과 미혼남녀의 의사소통 및 낭만적 애착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95-116.
- 권미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 적 양육행동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 효과. *아동과 권리*, 24(4), 529-545.
<http://doi.org/10.21459/kccr.2020.24.4.529>
- 권정숙, 조용주 (2019). 어머니의 부모화 및 과보호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4), 421-443.
<http://doi.org/10.33703/cbtk.2019.19.4.421>
- 김민정, 김종훈, 이미나 (2018). 부모의 부정적 정서성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385-403.
<http://doi.org/10.22251/jlcci.2018.18.12.385>
- 김선미, 김영희 (2019).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개념적 모형의 탐색.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1-21.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영, 김 환 (2013). 애착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39-363.
<http://doi.org/10.18205/kpa.2013.18.3.001>
- 김주은, 이재림 (2015). 대학생의 애착인물별 성인애착 수준 유형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119-145.
<http://doi.org/10.7466/JKHMA.2015.33.4.119>
- 김지영,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37-155.
- 김진경, 이정미, 강은영 (2018). 아버지의 원부모 애착표상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아버지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1), 65-89.
<http://doi.org/10.21459/kccr.2018.22.1.65>
- 김춘경, 조민규 (2015).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171-195.
- 김혜원, 유성경 (2017).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99-226.
<http://doi.org/10.23844/kjcp.2017.02.29.1.199>
- 나동석, 박종인 (2008).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4), 525-546.
- 나지혜 (201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김경은, 서소정, 성미영, 안선희, 임정하, 하지영, 황혜정 (2016). *영유아발달*. 서울: 창지사.
-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부모 소득 및 학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3(1), 37-54.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효정, 김도연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 지의 아동기 애착, 배우자의 부모역할지 지, 심리적 안녕감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4), 147-164.
- 백 솔, 한기백 (2020).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 양육태도와 폭식행동의 관계: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2), 493-519.
<http://doi.org/10.21509/KJYS.2020.02.27.02.493>
- 송하나 (2006).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3), 39-55.
- 신희천, 서정선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http://doi.org/10.18205/kpa.2010.15.4.008>
- 안하얀, 서영석 (2018). 성인 미혼 커플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성인애착과 관계육구충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195-221.
<http://doi.org/10.18205/kpa.2018.23.2.004>
- 오가영, 한지현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불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47-64.
<http://doi.org/10.37918/kce.2019.05.116.47>
- 오혜진, 도현심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2), 115-129.
<http://doi.org/10.5723/kjcs.2019.40.2.115>
- 옥 정, 방희정 (2012).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탐색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45-65.
- 우현경, 채진영 (2016). 예비아버지의 아동기 원부모 애착경험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3(4), 39-54.
<http://doi.org/10.15284/kjhd.2016.23.4.39>
- 원수연, 최미경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6(3), 115-138.
<http://doi.org/10.5723/KJCS.2015.36.3.115>
-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77-89.
- 윤경미, 한세영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83-102.
<http://doi.org/10.14698/jkce.2017.13.03.083>
- 이문희, 이수림 (2013).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http://doi.org/10.35151/kyci.2013.21.2.019>
- 이미나, 차기주, 정미라 (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229-251.

- <http://doi.org/10.18205/kpa.2016.21.2.003>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연, 박성연, 지연경 (2014).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부모의 초기 애착과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101-122.
- 이유리, 박성연 (2009).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77-188.
- 장영은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6), 1-21.
<http://doi.org/10.5723/KJCS.2015.36.6.1>
- 장은경, 이재림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 및 애착인물별 성인애착과 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대처양식의 관련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 27-53.
- 장휘숙 (2011).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부모 및 친구의 애착기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19-34.
- 전현진,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8(3), 159-174.
- 정영숙, 이재택, 박영애, 권수애, 김영남 (1997). 일상생활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2), 59-72.
- 조선화 (1997). 아버지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 179-203.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5), 385-411.
- 채진영 (201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75-83.
- 채진영 (2019). 임신기 부모의 원부모 애착표상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1), 41-50. <http://doi.org/10.6115/fer.2019.004>
- 채진영, 이강이 (2009).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4), 95-114.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우울 및 양육태도 간 단기 종단연구: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1(3), 253-279.
<http://doi.org/10.20437/KOAECE21-3-10>
- 하민경 (2019). 어머니의 자녀기대, 원가족 양육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

- 원연구, 14(3), 29-52.
<http://doi.org/10.16978/eccc.2019.14.3.002>
-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 한기백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http://doi.org/10.15703/kjc.14.5.201310.3065>
- 한기백 (2014a). 성인 애착과 정신적 자기표상: 아동기 트라우마와 성인기 우울의 매개 변인. *청소년학연구*, 21(3), 357-384.
- 한기백 (2014b). 아동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 애착의 관계: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59-17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len, J. G., Huntoon, J., Fultz, J., Stein, H., Fonagy, P., & Evans, R. B. (2001). A model for brief assessment of attachment and its application to women in inpatient treatment for trauma-related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3), 421-447.
http://doi.org/10.1207/S15327752JPA7603_05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11).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MA: Allyn & Bacon.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doi.org/10.2307/1129836>
-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885-903.
<http://doi.org/10.2307/353308>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3), 663-672. <http://doi.org/10.2307/353347>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2005). In pursuit of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and its relevance to attachment relationships. In K. E. Grossman, K. Grossman, & E. Waters (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New York: Guild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p. 53-90). London: Jessica Kingsley.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1273-1285.
<http://doi.org/10.2307/1130490>
-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97-605.
<http://doi.org/10.1037/0012-1649.27.4.597>
- Feeney, J. A.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across the life cycle of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4), 333-348.
<http://doi.org/10.1111/j.1475-6811.1994.tb00069.x>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http://doi.org/10.1037/0022-3514.58.2.281>
- Fraley, R. C., Heffernan, M. E., Vicary, A. M., & Brumbaugh, C. C. (2011).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lationship structures questionnaire: A method for assessing attachment orientations across relationship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615-625.
<http://doi.org/10.1037/a0022898>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http://doi.org/10.1037/0022-3514.78.2.350>
- Gao, M., Du, H., Davies, P. T., & Cummings, E. M. (2019). Marital conflict behaviors and parenting: Dyadic links over time. *Family Relations*, 68(1), 135-149.
<http://doi.org/10.1111/fare.12322>
- Godbout, N., Briere, J., Sabourin, S., & Lussier, Y. (2014). Child sexual abuse and subsequent relational and personal functioning: The role of parental support. *Child Abuse & Neglect*, 38(2), 317-325.
<http://doi.org/10.1016/j.chiabu.2013.10.001>
- Godbout, N., Dutton, D. G., Lussier, Y., & Sabourin, S. (2009). Early exposure to violence, domestic violence,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marital adjustment. *Personal Relationships*, 16(3), 365-384.
<http://doi.org/10.1111/j.1475-6811.2009.01228.x>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ttp://doi.org/10.1037/0022-3514.52.3.511>
- Hazan, C., & Shaver, P. R. (1992). Broken attachments: Relationship loss from perspective of attachment theory. In T. L. Orbach (Ed.), *Close relationship loss: Theoretical approaches* (pp. 90-108). New York: Springer-Verlag.
- Howes, C., & Spieker,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aregiver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pp. 317-332). New York: Guilford Press.
- Jeon, H. J. (1994).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Korean couples: Influences of attachment style, marital comparison, and motiv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Johnston, C., Belschner, L., Park, J. L., Stewart, K., Noyes, A., & Schaller, M. (2017). Mothers'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and attributions in relation to self-reported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17(1), 51-72.
<http://doi.org/10.1080/15295192.2016.1184954>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ć,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30-40.
<http://doi.org/10.1037/0893-3200.22.1.30>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http://doi.org/10.1177/026540759613200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mb, M. (2010). How do father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1-26). Hoboken, NJ: Wiley.
- Lewis, M. (2005). The child and its family: The social network model. *Human Development*, 48(1-2), 8-27.
<http://doi.org/10.1159/000083213>
- Lindsay, D. S., & Read, J. D. (1994). Psychotherapy and memories of childhood sexual abuse: A cognitive perspectiv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8(4), 281-338.
<http://doi.org/10.1002/acp.2350080403>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Liu, Y. L. (2008). An examination of three model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achments and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41-952.
<http://doi.org/10.1007/s10964-006-9147-1>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283-300. <http://doi.org/10.1037//0022-0167.47.3.283>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56-152).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ings, A., Walsh, J., Hepper, E., & O'Brien, M. (2013). Good partner, good parent: Responsiveness mediates the link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2), 170-180. <http://doi.org/10.1177/0146167212468333>
 - Mistry, R. S., Biesanz, J. C., Taylor, L. C., Burchinal, M., & Cox, M. J. (2004). Family income and its relation to preschool children's adjustment for families in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727-745. <http://doi.org/10.1037/0012-1649.40.5.727>
 - Parkes, A., Green, M., & Mitchell, K. (2019). Coparenting and parenting pathways from the couple relationship to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3(2), 215-225. <http://doi.org/10.1037/fam0000492>
 - Rholes, W. S., Simpson, J. A., & Friedman, M. (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http://doi.org/10.1177/0146167205280910>
 - Simpson, J. A., & Rholes, W. S. (2010). Attachment and relationships: Mileston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2), 173-180. <http://doi.org/10.1177/0265407509360909>
 - Strand, P. S., & Wahler, R. G. (1996).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1), 43-51. http://doi.org/10.1207/s15374424jccp2501_5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3), 387-403. <http://doi.org/10.1037/0033-2909.117.3.387>
- 1 차원고접수 : 2021. 04. 24.
수정원고접수 : 2021. 05. 17.
최종게재결정 : 2021. 06. 27.

The Effect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on Parenting Behavior of Couples with a Preschooler

Seo, Haein

Shin, Nana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adult attachment) of childhood attachment on parenting behavior of couples with a preschooler (age 3 to 5). A total of 238 couple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as used for the dyadic data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fathers, childhood attachment to mothers had direct effects on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For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to mothers had a direct effect on negative behavior. Second, couples' childhood attachment to mothers had indirect effects on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rough attachment anxiety. Couples' childhood attachment to fathers and mothers had indirect effects 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rough attachment avoidance. Third, none of the partner effects of adult attachment to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Our study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hildhood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in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can be used as sources for establishing programs for parents who have difficulty in parenting.

Keywords: childhood attachment, adult attachment, parenting behavior, APIM